

# 가을밤의 낭만, 천년고도 '나주'에서

## 나주시, 9월 17일부터 3일간 '나주문화재 야행'(夜行) 축제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8가지 여행' 주제 원도심 일원서

"깊어가는 가을 밤, 나주 읍성 권에서 전라도 천 년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천년고도 목사고을 나주에서 9월 가을밤의 낭만이 가득한 밤거리 축제 행사가 열린다.

나주시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주문화재 야행' 축제를 나주 원도심 읍성권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추이에 따라 축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가기로 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난 해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문화재 야행' 공모 사업 선정에 힘입어 나주 읍성권 문화자산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특색있는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나주시,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나주읍성권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하며 나주교육지원청, 동신대학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후원한다.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8가지 여행'이라는 주제로 금성관을 비롯한 읍성권 내 문화재를 야간 개방해 8개 테마의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8개 테마는 △야경(夜景, 밤에 비추보는 문화재) △야사(夜史,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설(夜說, 공연 이야기) △야시(夜市, 진상품 장사 이야기) △야로(夜路, 밤에 걷는 거리) △야화(夜畵, 밤에 보는 그림) △야식(夜食, 음식 이야기) △야숙(夜宿, 문화재에서 하룻밤)으로 공

연, 전시, 체험, 숙박, 먹거리, 여행 등 축제 콘텐츠를 총망라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첫 날에는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멀리 궁궐에 있는 왕에게 제를 올렸던 '망궐례'(望闕禮) 재현 행사가 열린다. 천연염색패션쇼, 나주시립국악단 공연 등이 축제 개막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금성관(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제2037호)과 나주향교(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8호), 정수루, 나주목사내야 등 문화재 야간 개방을 통한 '스텝프렐리', '돌담길 걷기' 등 문화재 탐방기투어는 3일 동안 진행된다.

조선시대 포졸과 의녀를 재현한 거리순찰·의술 퍼포먼스, 주막·저잣거리 장터, 나주향토전

통음식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와 맛깔나는 향토 먹거리도 제공한다.

읍성권 한옥마을·나주목사내야 숙박체험은 역사문화도시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하룻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부러진 골목길 오래된 집집마다 사연이 깃든 고샅길 돌담길에는 고즈넉한 야간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 주도로 만드는 문화재야행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해소하고 전라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색다른 매력을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드리고 원도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본부



## 곡성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이동빨래차량 수해복구 긴급 투입

### 6일 간 26대 지원

곡성군이 폭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각지에서 지원한 이동빨래차량을 긴급 투입해 보다 빠르게 수해복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폭우 피해가 컸던 곡성읍 신리, 대평리 1·2구, 오곡면 오지리 2·3구, 고달면 뇌연리, 고달면 호곡리, 오산 성덕마을 등에 8월 10일부터 6일 간 26대의 이동빨래차량이 투입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차량을 이용해 침수된 옷가지와 이불 등을 세탁함으로써 수재민들을 도왔다.

특히 지역 내에서 이동빨래차량

을 운영하는 곡성자활센터뿐 아니라 각지에서 이동빨래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수해복구가 진행됐다.

자원봉사센터, 강진자활센터, 광양자활센터, 경북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영암농협중앙회, 장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동빨래 차량을 지원해준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 담양군, 집중호우 침수 축산피해농가 대상 미생물 무상 공급...악취제거·가축면역력 ↑

담양군은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위해 악취제거와 가축면역증강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미생물을 18일부터 무상으로 공급한다.

침수된 축사는 높은 습도로 인해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수인성 질병 전파의 우려가 있어 군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악취제거를 위한 광합성균과 가축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초균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부터 배양을 시작해 2.5톤의 물량을 확보

해 18일부터 농가공급을 시작한다.

공급기간은 축사침수피해가 안정화 될 때까지이며 축산피해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에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량은 축사면적에 따라 한우(50두), 돼지(1,000두), 가금(10,000수) 기준으로 일주일에 20l이며 군은 고농도 친환경미생물을 2l 들이의 비닐포장상태로 공급해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 도곡면, 집중호우 침수 마을 집중 방역

'해충매개 감염병' 예방 위해 침수 주택부터 마을 외곽까지 소독

화순군 도곡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덕곡리 마을 일대 집중 방역에 나섰다.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방역차량과 휴대용 소독기를 이용해 침수피해 주택 실내 살균 소독은 물론 집 외부와 마을 외곽까지 살충 소독을 했다.

도곡면 덕곡리는 주변 지대가 낮아 지난 집중 호우 때 마을 대부분이 침수됐던 마을이다. 주택 6곳은 집안까지 물이 차고, 배수로가 범람해 마을 안길과 거의 모든 집 마당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윤영복 도곡면장은 "침수 지역에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방역 활동을 펼쳐 해충을 매개로 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긴급재난지원금 24일 신청 마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남은 잔액 환수

담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24일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8월 14일 기준, 전체 가구의 98.3%인 64,185가구 420억3400만 원이다.

아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때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기부 처리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은 긴급재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미신청 가구를 파악해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